

진도 농수산물 규모화로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군, 신사꽃게당·수협·스마트알뜰장터와 4자 업무협약
이재각 군수 “지역 농수산물 활용…새 성장동력 발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지역 농수산물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해 지역 기업·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2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진도군청 2층 상황실에서 ㈜신사꽃게당, 진도군수협, ㈜스마트알뜰장터와 지역 농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진도군 농수산업의 규모 확대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 먹거리 투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재각 진도군수를 비롯해 ㈜신사꽃게당, 진도군수협, ㈜스마트알뜰장터의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청정 해역 진도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품질 높은 꽃게와 전복 등 우수 농수산물의 사용과 홍보, 농수산물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 기타 상호협약에 따른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사꽃게당 대표는 “이번 협약은 진도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은 최근 진도군청 2층 상황실에서 ㈜신사꽃게당, 진도군수협, ㈜스마트알뜰장터와 지역 농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진도군청

다”며 “진도 꽃게와 전복 등 지역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

다”고 말했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진도는 풍부한 해양자원과 우수한 농수산물을 보유한 지역

으로,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며 “진도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

성과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강진쌀 안정적 해외판로 기반 다져

군, 호주 필리핀 첫 개척·유기농 쌀 미국 수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지역 쌀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 지원에 힘쓰며 강진쌀의 꾸준한 수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몽골, 미국, 일본, 뉴질랜드로 총 404t의 쌀을 수출하며 강진쌀의 우수성을 해외 시장에 알렸다.

해외 바이어 발굴과 수출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쌀 판매업체인 강진군농협통합RPC의 해외 판로를 개척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올해 강진쌀 수출 예정 물량은 총 300t으로, 7월 기준 170t을 수출했다. 강진군농협통합RPC는 올해 호주와 필리핀에 처음으로 강진쌀을 수출하며 신규 시장을 개척했다. 또 영동농장농조합법인도 지난 1월부터 미국으로 유기농 쌀을 수출하며 해외 판로를 넓혀가고 있다.

강진군농협통합RPC의 경우 해외 수출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 판로 개척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CJ햇



반 3000t, BGF푸드 4500t 등 국내 대형시장 판로도 넓혀가고 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고, 각종 수출 지원사업 등을 통해 강진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쌀의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 수출업체가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해외시장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규 시장 개척과 안정적인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52@

해남, 민선 9기 공약사업 실행력 높인다

5대 분야 15개 전략 98개 공약 세부실천 계획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은 최근 민선 9기 군정 목표인 ‘에너지 넘치는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 실현을 위한 5대 분야 15개 전략, 98개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세부 실천 계획 수립을 위한 첫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공약 사업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민선 9기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군은 사업별 문제점을 보완하고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요 공약 사업으로는 농업 인공지능 전환(AIX) 플랫폼 구축, 지역특산물 기반 기능성 K-푸드 산업 육성, 솔라시도 RE100·인공지능(AI) 산업거점 조성, 해남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도입, 지방도 806호선 도로망 조기 완성, 고령친화도시 조성, 홀몸 어르신가구 잔고장 출장수리 서비스 운영, 생활밀착형 정원 확충, 해남공고 마이

스터고 전환 추진 등이 포함됐다.

군은 8월 열리는 2차 보고회에서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사항을 반영해 과제별 세부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최종 공약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매니페스토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약 추진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약사업 하나하나를 꼼꼼히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여 군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신안, 찾아가는 구강건강 서비스 ‘호응’

올해 압해읍 경로당 2개소 어르신 30명 대상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일 신안군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5회에 걸쳐 압해읍 경로당 2개소에서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2026년 노인 방문구

강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65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 가운데 구강건강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개인별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올해 압해읍을 시작으로 각 읍·면별로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에는 치과 공중보건과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하며, 치과이동진료버스와 연계해 구강검진과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역 대학과 협력해 올바른 구강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과 구강운동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어르신들의 자가 관리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완도, 보훈단체 복지사업 운영
건강·활력 있는 일상 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가족의 건강 증진과 회원 간 화합을 위해 ‘보훈 단체 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국가보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오는 12월까지 상이군경회 등 관내 8개 보훈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라인댄스, 떡 공방, 천 아트, 그림 동화 미술교실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 참여자 간 소통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교류의 장도 마련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첫 프로그램인 천 아트에 참여한 보훈 가족 회원은 “천에 꽃을 그리다 보니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로 푹 빠졌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족들을 기억하고 배려해 주는 군에 감사드리며, 이런 자리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신 군수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며 “보훈은 존경과 감사의 실천인 만큼, 보훈 가족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www.global-dh.com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DH 글로벌